

APS카메라, 국내시장침투 힘들다

- 필름판매처 및 현상소 턱없이 부족 -

취재 : 최형심 기자

현재 국내 APS카메라 공급업체는 삼성항공산업, 한국후지필름, 한국코닥, 아남인스트루먼트, 선경 등 5개사이며, APS필름의 공급업체는 한국후지필름, 한국코닥의 2개사, APS필름의 현상이 가능한 현상소는 전국 50여 곳에 불과하다.

APS카메라에 대한 인지도의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보급률이 전무한 상태이며 APS필름 역시 일반 필름에 비하면 판매처 뿐만 아니라 현상소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APS카메라를 구입했다손 치더라도 카메라사용에 필요한 필름구입 및 현상에 많은 애로를 겪게 마련이다.

이에 현재 APS카메라 보급상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업체들의 대책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APS카메라 및 필름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지 10개월이 다되어 가는데도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거의 없는 상태.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신사진시스템으로 출시된 APS필름과 카메라,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국내시장에선 시기상조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APS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APS카메라 및 필름 보급상의 문제점을 파악, 향후 시장을 전망해보았다.

(순서)

1. APS란 무엇인가?
2. APS 카메라 및 필름의 종류
3. APS의 문제점
4. APS 필름 현상소 현황
5. 관련 업체들의 의견
6. 향후 APS카메라의 시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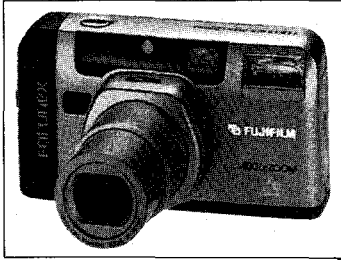
1. APS란 무엇인가?

APS(Advanced Photo System)란 기존의 카메라 및 필름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사진시스템으로서 APS카메라는 필름장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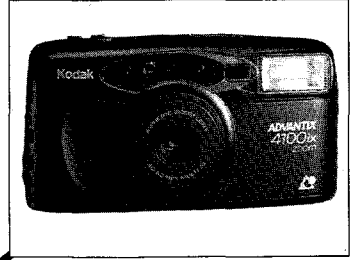
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품으로, 건전지처럼 장전만하면 되는 형태의 APS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이다.

이 제품은 콤팩트한 사이즈가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고 촬영시 자동적으로 주변환경, 노출, 조리개 수치 등의 촬영정보를 필름에 저장시킴으로써 현상, 인화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 최상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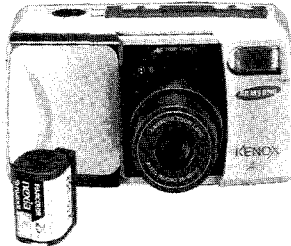
또한, 필름 장전시의 편리성과 함께 다양한 특징이 있어 일반, 파노라마, HDTV 등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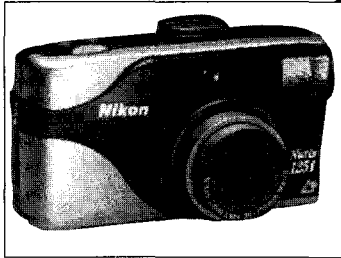
후지필름 '포토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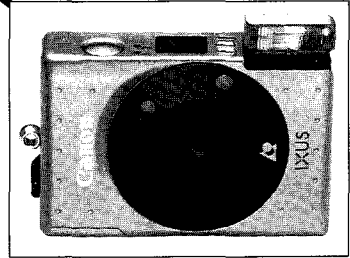
코닥 '어드밴티스'



삼성항공 '케노스 A60'



니콘 '누비스'



캐논 '익서스'

▲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APS카메라

가지 사이즈로도 사진을 찍고, 현상할 수 있다.

필름 전면에는 마그네틱이 도포되어 있어 촬영과 관련된 노출 및 조명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인화시 촬영때 부족한 부분을 자동으로 보완해준다.

그밖에도 APS전용 사진첩에 현상된 필름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기존의 밀착프린트와 비슷한 인덱스 프린트를 보관할 수 있다.

2. APS카메라 및 APS필름의 종류

1) APS카메라

APS카메라의 특징은 디자인이 예쁘고 작고 가벼워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필름장전이 쉽고 3가지 사이즈(일반형, HDTV형, 파노라마형)으로 사진을 선택해서 찍을 수 있다.

하지만 APS카메라의 판매율은 거의 없는 편이며, APS

전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일반 필름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현재 APS카메라는 후지나 코닥의 APS현상소를 중심으로 판매되거나 일부 카메라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용산전자상가 등에서도 취급을 하는 곳이 드문 편이다.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APS카메라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

된 삼성항공산업의 케녹스 A60과 후지의 포토넥스, 코닥의 어드밴틱스, 아남니콘의 누비스, 선경 캐논의 익서스의 5개사 품목이 있다.

삼성항공은 올 상반기 자체 개발로 APS카메라인 A60을 출시했으나 국내수요가 거의 없어서 생산량 100%를 수출하고 있다.

후지필름은 포토넥스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포토넥스 10, 50, 100E, 100ix, 200ix 줌, 250Ix 줌, 300ix 줌, 400ix 줌, 400ix SL등이 있다.

코닥은 어드밴틱스라는 브랜드로 2100AUTO, 3100 AF, 3600IX, 4100IX줌의 4가지 카메라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선경에서는 IXUS, IXUS Z90, AF-S, FF25, EOS IX E 등의 캐논APS카메라를 공급하고 있고, 아남인스트루먼트에서 공급하는 니콘의

APS카메라는 PRONEA 600i, Nuvis 125i, Nuvis 75i, Nuvis mini i등이 있다.

2) APS 필름

후지에서 공급하는 넥시아는 A, F, H의 세 가지가 있으며, 이는 각각 All Round 필름, 초고화질필름, 고감도필름을 말하고 감도별로 100, 200, 400의 필름이 15장, 25장, 40장의 3종류로 분류되어 있고, 코닥에서 공급하는 어드밴틱스도 후지와 동일하게 감도별, 매수별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표 1 참조>

3. APS의 문제점

1) 홍보상의 문제

APS(Advanced Photo System)라는 용어는 신사진시스템으로 일반인이 듣기에 너무나 생소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나 관련자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 APS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없다.

후지와 코닥이 올 상반기 제품설명회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긴 했지만 APS필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에 한국후지필름의 이기선 대표이사는 "APS필름이라고 하지말고 24mm필름이라고 얘기하면 이해도 쉽고 거부감도 덜하고 35mm필름과 비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어가 어려워져 친밀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2) APS카메라의 별도구입 문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1대이상씩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APS로 사진을 찍고자하면 적어도 30여 만원을 투자, 별도의 APS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생산품은 삼성항공산업 1개사의 단 1개모델에 지나지 않고, 광고 등의 홍보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삼성항공이 생산하는 APS국산품외에는 모두 수입 제품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

3) 다음은 필름구입문제

APS필름을 판매하고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표 1> 국내 공급되고 있는 APS필름의 종류 및 권장소비자가격

감도 (ISO)	매수 (매/롤)	권장 소비자가격	
		한국후지필름	한국코닥
		넥시아	어드밴틱스
100	25매	3,500원	2,900원
	40매	4,200원	3,600원
200	15매	2,500원	2,300원
	25매	3,000원	2,900원
	40매	3,700원	3,600원
400	25매	3,500원	3,200원
	40매	4,200원	4,000원

APS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하면하더라도 필름이 떨어져서 새 필름이 급히 필요할 때 근처에서 필름을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여유로 구입을 해야한다.

더군다나 APS필름은 1롤당 가격이 일반 필름보다 5백원이 상 비싸다.

판매처를 찾아 비싸게 구입한 필름으로 촬영을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4) 현상의 문제

APS필름의 특징인 다양한 사이즈, 선명한 화질을 얻기위해서는 전문 현상기를 보유하

고 있는 현상소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이 전문현상소도 필름판매처만큼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전국에 40여군데 밖에 없는 현상소를 찾아 맡기려면 번거로운 뿐만아니라 아직까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APS현상으로 현상비가 일반필름의 그것에 비해 2~3배이상이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APS는 수요자의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APS 필름현상소 현황

현재 국내 APS 필름현상소

는 코닥이 38곳, 후지가 11곳, 현대칼라가 1곳, 아그파코리아가 1곳이 있다.

이외에도 코닥은 두산현상 영업소 21곳과 대한현상소에 서도 현상인화에 대한 접수가 가능하다.

이들 현상소는 APS필름현상이 가능한 사진현상기를 설치해놓은 곳이거나 최근에 설치한 개조가 가능한 미니랩에 APS필름이 현상가능한 키트 세트를 부착한 경우이다.

이에 향후 공급되는 미니랩은 APS필름현상이 가능한 신기종의 미니랩이거나 옵션으로 원하면 키트를 부착해서 APS

(표 2) 전국 APS필름 현상소 LIST

한국코닥(주) (38곳)

지역	업소명	전화번호
서울	남부칼라	(02)587-1516
	미도사	(02)965-9300
	반도뉴코아	(02)591-2836
	서울칼라	(02)793-4105
	아리랑스튜디오	(02)755-4722
	원칼라	(02)568-0045
	유신칼라	(02)780-9957
	크레파스	(02)583-9164
	태양사	(02)967-1590
	유광사진실	(02)3391-8466
	한라칼라	(02)568-9046
	APS칼라	(02)515-1757
	수원	명화칼라
성남	신성칼라	(0342)705-8862
부천	세종스튜디오	(032)343-3368
	화신칼라	(032)655-5590
인천	환영칼라	(032)426-9443
부산	뉴욕칼라	(051)818-4525
	동래칼라	(051)555-8565

지역	업소명	전화번호
부산	부광칼라	(051)746-2882
	형제칼라	(051)248-8880
대구	미도칼라	(053)426-1133
	서진칼라	(053)423-0810
영주	백화사	(0572)32-1100
울산	명도칼라	(0522)38-6476
	연양칼라	(0522)62-0078
마산	사진만들기	(0551)56-8743
포항	제일칼라	(0562)73-0980
광주	예림칼라	(062)371-2251
	포도뱅크	(062)350-0234
전주	전주코아칼라	(0652)84-0027
대전	장주칼라	(042)221-4655
	현대사진관	(042)632-4555
청주	사진마을	(0431)56-6777
조치원	형제칼라	(0415)865-2719
원주	사진만들기	(0371)732-3279
속초	설악칼라	(0392)32-3457
제주	국일칼라	(064)52-0409

한국후지필름(주) (11곳)

지역	업소명	전화번호
서울	후지포토살롱	(02)266-3722
	아신교역	(02)753-5089
	프라이스클럽	(02)630-2626
	경남17분칼라	(02)534-8080
	썬스튜디오	(02)333-1795
	청스튜디오	(02)547-4497
부산	평강제일교회	(02)618-1473
	명진칼라	(051)465-6631
	대구 프라이스클럽	(053)954-1234
경주	보림칼라	(0531)43-7393
전주	세명사	(0652)82-3237

현대칼라(주) (1곳)

지역	업소명	전화번호
서울	현대칼라	(02)703-7474

(주)아그파코리아 (1곳)

지역	업소명	전화번호
서울	네모현상소	(02)268-8742

필름의 현상도 가능할 수 있는 제품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미니랩에서는 APS필름의 현상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 미니랩을 APS필름현상이 가능한 미니랩으로 대체할 때까지는 원활한 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5. 관련업체들의 의견

1) APS카메라공급업체의 의견

APS카메라공급업체로서는 현재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되지않은 APS시장에 카메라를 공급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APS필름과 카메라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후지나 코닥의 경우는 올해 초부터 필름 및 카메라의 공동 판매를 위해 홍보를 했지만 신규수요를 창출해내기가 쉽지않았다.

이에 국내 카메라메이커인 삼성항공에서 APS카메라를 출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성항공 상품기획팀 APS카메라 담당자인 장재원주임에 의하면 "35mm카메라로 국내 시장을 굳히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APS카메라의 개발을 위

해 투자비를 들였고 생산라인을 신규설치하는 데도 비용발생이 많이 된 터라 별도의 투자비를 들여 마케팅까지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막상 홍보를 주려해야할 APS 필름공급업체들이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지않아 소비자의 인지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APS카메라의 수요발생도 일어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APS카메라의 판매에 대해서는 "일본뿐만아니라 유럽, 미주에서는 APS필름의 사용량과 함께 APS카메라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APS카메라의 수요량은 거의 없어 월 7천대의 생산량을 100% 수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국내에 APS필름공급업체인 후지와 코닥에서 공급하는 APS카메라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APS시장이 보편화되어도 국내기술로 개발한 APS카메

라 1기종으로는 내수시장판로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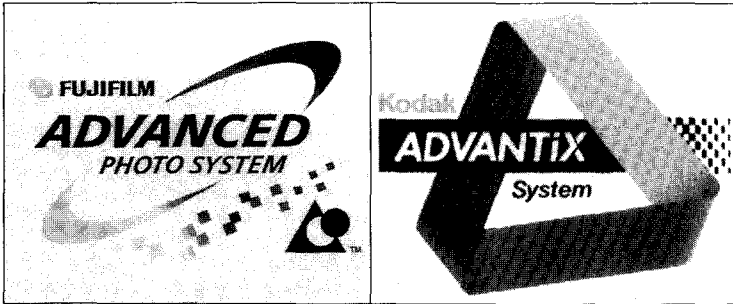
APS카메라의 생산계획에 대해 "생산공장에서는 수출용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자는 주장이나 내년에도 내수시장의 수요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 모델 1기종만 수출용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후지필름의 정보영상과 김광호 과장은 "후지는 APS고급기종을 위주로 영업을 계획해 내년에는 APS카메라의 점유율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으며, 선경의 경우는 "필름 구입상의 애로사항을 고려, 대리점에 APS 캐논 익서스 카메라와 APS필름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APS카메라의 보다 활발한 공급을 위해서는 APS현상소가 시급히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야 한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부품을 수입, 조립해서 국내에 공급하



▲ 후지의 '넥시아' 및 코닥의 '어드밴티스' APS 필름



▲ 후지와 코닥의 APS 심볼마크

고 있으며, 필름공급의 문제와 현상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APS카메라의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APS필름공급업체의 의견

APS필름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로서는 APS필름 공급에 여간 애로를 겪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미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미주쪽에서는 APS필름이 점차 사용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미조차도 보이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APS필름이 활성화될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용상의 문제점은 소비자의 측면이고 공급업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르다.

필름공급업체로서는 홍보를 하려고 해도 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홍보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APS필름을 준비한 후지와

코닥은 국내시장에 97년 2월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필름을 사용하는데는 먼저 APS전용카메라의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필름공급업체측인 한국코닥과 한국후지필름은 삼성항공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판촉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며 현재 APS 현상소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의 APS필름담당자인 임지영씨는 "현재 필름업체들은 현상소를 늘리고 광고를 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APS카메라 생산업체인 삼성항공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APS카메라와 필름업체의 상호의견은 닮이 먼저나 달갈이 먼저나는 논리와 같은 것으로 카메라가 구축되어야 필름이 판매되느냐, 필름이 인지되어야 카메라가 판매되느냐의 문제이다.

한국후지필름의 장형팔상무는 "삼성항공측의 말처럼 필름공급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APS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APS필름현상기의 보급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필름사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름공급업체들로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현상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상기의 대부분은 APS필름현상이 불가능한 기종이고 또 개조로 APS필름의 현상이 가능한 최신기종이라 하더라도 개조시에 별도로 장착해야 하는 키트세트의 가격이 1천4백만원(두산상사) 또는 2천만원(한국후지필름)에 달한다.

이는 보통 미니랩의 가격인 3-4천만원에 미치는 가격대로 지금처럼 APS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투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상소의 입장이다.

따라서 장착키트공급가를 50%까지도 할인을 해서 판매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1천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현재 수요량도 미미한 APS필름현상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언제가 될지 막연하기만하다.

이에 후지와 코닥은 일회용

APS카메라를 중심으로 판매율 및 인지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지만 현상소문제와 현상료 및 필름판매가격의 인하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할 문제다.

3) APS필름 비공급업체의 의견

국내 필름공급업체 5개사중의 3개사는 APS필름이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자 시장을 검토중에 있다.

현대칼라의 필름과 정장섭과장에 의하면 "현대칼라의 경우 일본 코니카필름을 통해 지난 3월말경 5백롤의 샘플을 시장에 선보였으나 별다른 호응을 보지 못해 현재 본격적인 공급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했다.

우성필름도 이 회사 기획실 임승희과장에 의하면 "일본도 APS필름이 활성화되지않고 있으며 일반필름과 디지털카메라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APS필름공급보다는 기존 일반 필름의 마켓쉐어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아그파코리아의 마케팅부 최현옥과장은 "APS필름 샘플공급을 시작으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면 언제든지 공급할 생각은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 APS필름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급율이

증가되기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APS필름이 국내시장에서 의외로 반응이 늦자 일반필름의 마켓쉐어가 낮은 업체들은 수요량도 미미한 APS필름시장쪽보다는 기존 시장점유율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향후 APS카메라의 시장전망

아무리 기존보다 나은 기능을 가진 신제품이라 할지라도 인프라구축이 안된 제품은 사용자층의 호응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APS현상이 가능한 미니랩의 공급 뿐만아니라 APS카메라 보급을 및 필름의 판매처 늘리기, APS필름가격인하 및 현상료 인하등으로 소비자들을 집중공략해야한다.

일본의 사례처럼 전체 현상소의 30%이상에서 APS필름의 현상이 가능하게 되면 필름공급업체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펼쳐 카메라보급과 동시에 필름공급으로 하면 점차 APS필름으로 옮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변화를 꺼려하는 국내 수요자들의 성향이 얼마만큼 이에 따라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APS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에 적절한 카메라 및 필름의

보급, 현상기설치 등이 갖추어져야하며, 인프라구축의 측면으로 볼 때 지금의 현상기가 APS현상용으로 대체되기까지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한다.

한편, 한국광학기기협회의 홍계인전무는 "APS카메라시장의 보급을 위해서는 카메라업체, 필름업체, 현상기업체가 하나로 뭉쳐 APS현상이 가능한 현상기설치에 주력하고 카메라홍보 및 필름보급상의 문제점 해소로 APS를 사용하는 소비자층이 불편함이 없어야 APS카메라는 물론 필름, 현상 등의 전체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주나 유럽, 일본보다 낮은 기종의 현상기가 대부분 설치된 국내시장에서 APS필름 현상이 가능한 현상기로 대체하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홍보활동만으로 APS시장을 확대시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은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즉석 APS카메라 등의 사용을 유도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APS시장을 일으키려면 현상기, 필름, 카메라 메이커가 공동투자해서 제반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APS카메라 시장활성화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